

### 불자 세상보기

10·27법난 33주년 소회



원행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월정사 오래 된 신도 여래장 보살은 착하다. 이 착한 보살의 군인 아들은 내 목에 권총을 겨누고 나를 원주시 대장동 천일공사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검검한 대공분실 벽 안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날아오는 고통 소리.

“야, 이 중놈야. 군복으로 빨리 갈아입어.”

여기 저기서 퍽퍽 내리치는 소리와 고통의 비명은 끊이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쇠몽둥이 도리깨질, 시멘트 바닥에 남자하는 피와 울부짖음. 물구나무 세우 쿡쿡음을 막고 고춧가루와 양동이 물바가지로 퍼붓기, 이듬하야 고춧가루 물고문. 혼몽 중에 나는 최면에 걸린 듯 까마득하게 잊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

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생하게 앞에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기절하면 군인은 찬물 세례로 깨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히고 다그쳤다.

“월정사에서 10년 동안 재무 소임을 봤잖아. 비밀 자금 어디에 숨겨놓았으며 비밀 아파트와 여자는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빨리 적어. 무엇 때문에 중이 되었는지, 북한 간첩과는 몇 번 만났는지 실토해. 중이 된 후에 자제한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라고, 알았어?”

부서진 발목과 부러지고 흔들리는 치아와 통통 부은 얼굴로 원주 천일공사 보안부대를 나설 때, 공금이나 사금이나 통장을 모두 압수당했으니 절 살림을 어찌 꾸려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을 위해 산승이 됐으며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인가. 10·27법난은 삼정교육대 사건으로 많은 스님이 통증으로 열반하셨고 또 많은 분이 월계어나

지팡이를 의지해 수행하고 있다.

참으로 무상(無常), 무락(無樂), 무아(無我), 무정(無淨)이다. 능견(能見)과 소견(所見)인 경계를 보지 아니해 없어지지 않는(無滅)것이 열반. 분별을 보지 아니하고, 상(相)과 무상(無相)을 보는 것이 열반. 열반은 가히 취할 바도 아니며 가히 버릴 바도 아니요, 단멸도 아니며 떳떳함도 아니라고 했다.

금년에도 찾아오는 계절처럼 예의 없이 조계종 총무원과 10·27불교법난위원회에서 10·27법난 기념식에 피해자를 대표해 나에게 인사말을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와 함께 매년 가을 단풍절 10월에는 정기적으로 나에게 계절처럼 찾아오는 통증이 있다. 그곳은 왼쪽다리 복성부부관절부분으로 10·27 불교 법난 시 고문당해 수술한 부분이 항상 나를 절뚝거리게 하고, 시려오는 치아도 모두 부서져 항상 이 결실과 환절의 계절에 나의 육신을 통증으로 괴롭힌다.

3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피해보상과 사과 없이 또 한해가 지나고 있고, 그 무섭고 두려운 종교 탄압이 조사기간 연장과 정부의 시간끌기로 많은 피해 당사자 스님들은 열반했다. 나는 지난 34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의 소임을 수행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법난위원회에서는 이 법난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 주기를 기원하며 전 재산이 29만원이었던 당시의 대통령의 수백억 재산이 압류됐다는 사건은 나의 통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대산에 출가하여 월정사에서 10년간 원주와 10년간 재무, 총무 10년 또 10년간 부주지 소임을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한국불교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일생패결’을 한 번 더 복독하며 다시 음미하는 새벽이다. 월정사 팔각구층탑에서 흔들리는 풍경소리가 탑돌이 하는 나의 심금을 바이올린 G현의 소리로 연주하는구나!

### 중국불교박람회를 다녀와서



김민지  
2014불교박람회 사무국장  
소셜벤처  
마인드디자인 대표

하문, 중국 남동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샤먼(廈門, 하문)이라 부른다. 이 도시는 수심이 깊고 겨울에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로 고대부터 무역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래 전부터 무역항의 역할을 해 온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 도시는 박람회를 하기에 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8회를 맞는 ‘중국하문 국제 불사용품 전람회(이하 하문불교박람회)’의 주최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하문불교박람회는 차 박람회와 함께 진행되는데 이런 이유로 관람객도 주최 측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하문불교박람회는 부스 8만평, 4500부스의 대형 규모이며, 업체 수는 1100~1200업체로 매년 2~3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전시기간동안 총 관람객은 12~15만명이고, 하루 대략 3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간다.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래국향 하문불교박람회 주최사 총경리와 차담을 갖고 불교박람회와 하문불교박람회 가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국 하문에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중국 국제불교박람회 전경.

을 논의했다.

“중국불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동안 불교관련 업체들이 더욱 더 많아졌고, 때문에 정부지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중국불교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하문불교박람회 측의 설명에 중국불교와 중국불교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박람회를 통해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생활 불교’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를 갖고 불교박람회와 하문불교박람회 가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의 비중을 확인해 보았더니, 2:8정도로 스님이 2~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도 불단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중국인들에게 불교용품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층은 자연스럽게 스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하문불교박람회에서 느꼈던 점은 그들의 전통문화의 색을 ‘불교’라는 테마로 엮어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스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전시장에 들어오면 ‘동양적이다, 중국의 느낌이다, 이곳은 영자가 오래된 곳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계속 하게 된다. 약 2000년을 함께한 종교와 그 종교에서 파생된

예술과 문화의 향연을 박람회라는 장소에서 거침없이 발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문 불교박람회는 국제불사용품박람회로서의 기풍도 다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성종사와 나전칠기 장인도 함께 전시하였고, 베트남, 태국까지 아우르는 불교용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하지만 참여 국가들의 표시가 간판과 부스정보에 기입돼 있지 않아 어떤 국가의 불교문화인지, 불교 상품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영어로 표기된 설명서나 홍보물이 없어서 박람회에 대해 깊이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각 색선에 대한 분리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관람을 하기에 편리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박람회는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방면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여러 가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한국 불교역사의 1700년을 함께하고 현재 문화재 중에 7~80%에 육박하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 문화와 산업을 박람회로 답답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2014불교박람회를 실속있게 준비해 불교문화와 발전이 대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불교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곳곳에도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란다.

### 社說

## 언제까지 대안교육 불모지 일텐가

한국의 대안 교육의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제도권 공교육에 이탈했거나 새로운 교육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찾고 있다. 계속해서 다양한 대안 교육의 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종교들도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불교에게 이 같은 대안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다. 현재 대안학교 및 대안 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54곳 중 불교계 대안학교는 전무하다.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19곳, 원불교 대안학교는 10곳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 외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여 곳에 이르는 민간단체 대안학교 중 기독교 사상을 표방한 학교는 약 133곳에 이르지만, 불교계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실상사 작은학교 등 3곳 뿐이다. 장기 위탁형 대안학교 역시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인드라마 대안대학’이 준비되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불교는 대안교육의 장이 되기에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사찰이 가지는 자연환경부터 불교 철학과 사상은 아이들을 진인적 인간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다.

하지만 불교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관심이다. 십여 년째 실상사 작은학교를 운영해 온 도법 스님은 학교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불자보다는 이웃종교 학부모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불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재정이 넉넉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교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대안교육의 장을 열어야 한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비제도권 교육에서도 불교계는 설 자리가 없다. 경각심을 가질 때다.

## 동국대 ‘비전 2020’ 과 함께 도약하자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이 2014년 설립 108주년을 맞아 활발한 도약을 준비중이다. 이에 11월 26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비전 2020 선포식’을 갖는다.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를 불교 이념으로 선도하기 위한 도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실천과제로 우선 동국불교센터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은 단독적인 건물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환경이 열악한 것이 그 이유다. 불교학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불교센터를 건립해 불교학의 선진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불교의 사회적 소통 등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이번엔 추진하는 ‘비전 2020’에는 학부·대학원의 연계 활성화, 불교학 허브(HB)구축, 한국불교세계화 인프라 구축, 국제적 학문 후속세대 육성 및 불교인재 양성, 불교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불

교학 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분과도 세분화시켜 제 1분과 교육과 연구 분야에는 대학원 및 학부구조 정비와 불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학제 간 연구 및 불교대학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 사업을 펼친다. 제 2분과인 국제화와 세계화 분야에서는 해외 불교대학과의 지대결연 확대, 국제적 불교인재 육성, 동북아 3국 북수학위 취득, 동아시아 수행프로그램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 3분과인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불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할 생각이다. 이런 계획들이 실현에만 잘 옮겨진다면 불교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불교학의 발전이고 한국불교의 발전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비전 2020’에 거는 기대가 크다. 비전이란 실행에 옮겨졌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김홍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김홍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무원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물,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